

## 제 112호 자신감 가지기 2

지난주에 말씀드린 "1. 학교붕괴 현상을 제대로 비교-평가한다."에 이어 잘못된 비판을 바로잡는 내용을 계속 합니다.

### 2. 학교붕괴 현상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지난 주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 학교붕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붕괴는 이미 195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 제임스 딘을 슈퍼스타로 탄생시킨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1950년대의 미국 고등학생들의 생활을 그린 영화인데 권위도 권한도 없기에 의욕을 상실한 선생님, 학생들을 슬슬 피하는 상담교사, 절망적인 학부모, 왕따, 집단 폭력 등등 요즘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오기와 반항으로 무모하게 죽음에까지 이르는 학생... 미국에서는 그 후로 30년이 지나서야 겨우 교육붕괴가 국가 자체를 붕괴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위기를 인식하고 "Nation at Crisis"라는 보고서를 통해 교육문제를 국가 차원의 문제로 부상시켰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교육붕괴 현상은 유럽에서는 1960~70년대,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조짐을 보였습니다. 일본 교육붕괴에 대한 분석과 대안에 대한 기사가 최근 <문예춘추> 잡지에 실렸더군요. 그러나 한국의 학교붕괴 현상은 미국보다 약 40년, 일본보다 약 10여 년 늦게 나타난 것이지만 대안 찾기는 거의 같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 교육붕괴 현상이 나타나자마자 곧바로 사회 톱 이슈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 희망이 있음을 확신 시켜주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예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교육붕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학교붕괴 현상을 초래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산업시대에 맞는 교육 체제가 지식기반시대에 맞는 체제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도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탄하는 획일적 교육은 사실 우리가 산업화를 이룩하는 데 앞장선 일등공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주하는 팽창위주 교육 정책은 전체 인구의 5% 미만이었던 고등교육 수혜자의 수를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30% 선 이상으로 단기간에 달성하게끔 만들었던 필수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교사와 교수는 그 당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을 잘 해낸 공로자입니다.

우리 한국이 동서고금을 통틀어 유래 없이 가히 기적적인 산업화를 이루어 냈던 이유는 우리 모두 매우 잘 했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나라가 변했고, 세계가 변했고, 사회가 필요 하는 인재의 종류가 변했습니다. 따라서 성공의 잣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생존전략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

개인의 생존전략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생존전략마저 변해 야 합니다. 교육 목적과 방법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빨리 변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이 점에 대한 자아 비판은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서운 비판의 목적은 비판에 있다기보다는 매서움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판을 신랄하게 하다보면 성찰을 떠나 학대로 전락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를 오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법칙을 몰랐다고 뉴턴이 바보였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이렇듯 역사는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할 적에 정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붕괴 현상을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가 특징인 지식기반사회의 교육의 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필요로 하는 획일적, 일방적, 수직적 교육의 틀이 반드시 "붕괴"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98년 봄에 "한국인이 반드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라는 책에서 말했듯이 붕괴된 학교 모습을 번데기 껍데기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가 기어다니는 애벌레와 같다면 정보화 시대는 날아다니는 호화 찬란한 나비와 같습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껍데기를 찢고 나와야 하듯이 산업화를 위한 교육이 지식창출을 위한 교육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옛 체제가 붕괴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찢겨야 할 껍데기가 찢기는데 "교육위기"라든지 "미래가없다"함은 부당합니다.

이제 우리는 학교가 애벌레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학교가 나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을 합해야 할 때입니다.